

# 가까이 있는 것, 일상을 노래하다

## 노리플라이(No Reply)

글 신다혜 객원기자(dhshin131@techm.kr)



노리플라이는 올해 2010년 2집 이후 6년 6개월만에 3집 앨범 '뷰티풀(Beautiful)'을 선보였다.

지난 3월, 6년 6개월 만에 3집 앨범을 발표한 노리플라이. 아트북 콘셉트의 에세이집을 발표하며 한층 더 깊어진 가사와 멜로디로 돌아왔다. 몰아치는 파도와도 같은 노래들이 흥행하는 지금, 노리플라이의 노래는 잔잔한 호수 같은 음악으로 관객에게 이야기하고 있다.

노리플라이는 2006년 17회 유재하 음악경연대회에서 은상을 수상한 이후 꾸준한 음악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데뷔과정부터 그들이 보여준 음악 세계관은 자연스럽게 '1990년대 웨메이드 팝의 계보를 이어가는 밴드'라는 수식어를 붙게 했다. 밴드의 이름도 경연대회 출전 당시의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그들은 '응답 없음'이라는 이름 뜻과는 다르게 뷰티풀민트라이프, 단독 장기 콘서트 등으로 꾸준하게 팬들에게 응답하고 있다.

"우리의 음악은 조금은 달랐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퍼포먼스 위주로 빠르게 소비되는 시장의 흐름에

맞추기보다는 앨범에서 한 편의 영화를 보는 것 같은 무게감을 느끼게 하는 것은 어떨까 생각했어요."

노리플라이는 '나는 당신을 통해서만 이 세상을 아름답게 볼 수 있다'라는 뜻에서 3집 주제를 뷰티풀로 정했다. 평범하고 낡은 물건들, 너무 가까워서 특별할 것 없었던 사람들이 나의 삶을 가장 빛내준다는 것을 느꼈다고. 그래서인지 이들은 가까이 있는 것들, 일상의 것들을 노래한다.

### 오래된 악기로 음반 작업

사회가 빠르게 발전하는 만큼 물건도, 관계도 대체하기 쉽다. 바뀌는 것에 대한 아쉬움도 점점 멀어지고 있다. 노리플라이는 한 사람과의 관계, 익숙한 장소, 변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 노래한다. 시간이 지날수록 특별해지는 것은 오래되고 낡았지만 자기에게 익숙한 것. 막상 없어지거나 고장 나면 큰 상실감을 주는 것들이다.

노리플라이의 가사는 대부분 사람과의 관계, 혹은 그 로인한 감정변화 등으로 이뤄져있다. 가사에 대한 영감은 멤버 각자의 개인적 경험뿐만 아니라 팝 음악을 들으며 떠올린다고. 특히 요즘에는 1960~70년대 올드 팝을 즐겨듣는다. 가사를 잘 몰라도 그 시대에 유행했던 멜로디를 듣고 가사를 상상하는 과정을 즐기는 것. 오히려 가사 뜻을 잘 모르기 때문에 상상력을 더 넓힐 수 있다고 전했다. 잔잔하고 깊은 멜로디는 멤버 권순관의 어릴 적 환경에서 비롯됐다.

"아버지가 LP 애호가셨어요. LP가 집에 3000여 장 있었는데 특히 클래식 음악을 많이 들으셨죠. 혼자 인방에



노리플라이는 감성적이고 울림을 주는 노랫말, 멜로디로 각광받고 있다.

들어가서 LP를 듣다가 잠들기도 했구요." 그는 어른이 돼서도 줄곧 잔잔한 음악과 오래된 악기가 주는 울림을 찾아다녔다. 실제로 그는 음악 작업을 할 때 1960년대에 만들어진 베이스와 70년대에 만들어진 피아노를 쓴다. 새로운 음향 장비들이 주는 감각적인 느낌도 좋지만 오래된 악기가 주는 울림은 대체 불가능한 매력이 있다.

노리플라이는 사람들이 그들의 음악을 포함해 옛 감성 콘텐츠를 찾는 이유를 먼 곳에서 찾지 않았다. "당장 주변만 봐도 사람들이 앞으로 나아가는 것만 쫓고 있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지치다보니 더 옛날의 추억들, 변하지 않는 것들을 그리워하게 된 것 아닐까요?"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은 없다고, 해외의 경우 포크송 같은 아날로그 멜로디들이 유행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옛날 노래를 부르는 프로그램들이 꾸준히 인기를 얻고 있다. 사람들이 낡고 오래된 것들, 가까이 있어서 당연해진 것들이 소중하다는 것을 점점 깨닫고 있는 것이 아닐까. 노리플라이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여운을 줄 수 있는 음악 장인의 역할을 꿈꾼다. 누군가 많이 들어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듣는 이가 단 한사람뿐이어도 그 사람의 삶에서 오래 잊히지 않는 음악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말했다.

### 오랜 관계에서 오는 편안한 음악

멤버 권순관과 정육재의 관계도 그들의 음악만큼 깊고 남다르다. 20여 년 전, 동네 형 동생으로 만나 지금까지

인연을 이어오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이 몸담고 있는 회사와도 10여년 넘게 인연을 유지하고 있다. 이들이 이렇게 관계를 오래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 멤버 권순관은 평소 꼼꼼하고 철저한 편으로, 빈티지하거나 클래식한 소품, 장소를 좋아하는데 이 같은 성향이 음악에 반영됐다. "저는 이상하게 나무가 좋아요. 최근엔 하와이를 갔는데 그곳에 오래된 카페들이 많아요. 나무들이 오래되고 지저분했어도 사람들이 드나들었던 흔적과 냄새가 아늑하고 따뜻한 느낌을 줘서 좋았던 것 같아요."

멤버 정육재는 환경 프로젝트 '튠(TUNE)'으로 활동하며 환경 관련 음악을 만들기도 했다. "저는 주로 굵직하고 전체적인 것들을 봐요. 즉흥적인 걸 좋아해서 아무 계획 없이 여행을 떠나기도 하고요. 성향이 순간이 형과 정 반대여서 부딪히는 점이 많을 거라 생각했지만 오히려 그렇기에 서로 배우는 점이 있죠. 음악이나 인생에서 추구하는 지향점은 같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오랫동안 함께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앨범 발매 이후 공연으로 숨 가쁘게 달려온 이들. 다가오는 11월 25일에도 전북 전주의 한국소리문화의전당에서 콘서트를 연다. "3집 앨범은 오케스트라와 협업하는 등 묵직한 음악을 시도하면서 클래식을 좋아하는 분들한테도 큰 호응을 받았어요. 다음 앨범은 소박하고 편안한 음악을 할 계획입니다. 또한 다양한 가수와의 작업을 하겠지만 오래들 수 있는 음악, 울림을 주는 음악이라는 저희의 지향점은 쪽 이어나갈 생각입니다." ❶